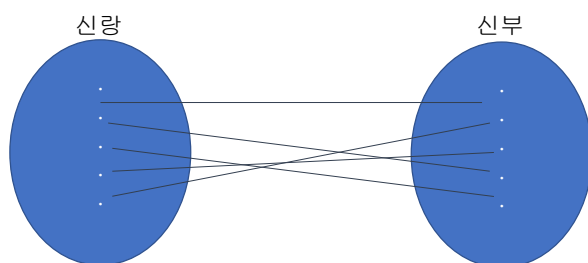


chap10 관계 모델

1:1 관계

- 1 : 1 관계란 어느 쪽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더라도 반드시 단 하나씩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.
- 일부일처제인 혼인 제도에서, 즉 한 남자는 한 여자와, 한 여자는 한 남자와 밖에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. 부인을 또는 남편을 2명 이상 둘 수 없죠
- 이런 관계를 1:1 관계라고 합니다. 개념 상 하나로 합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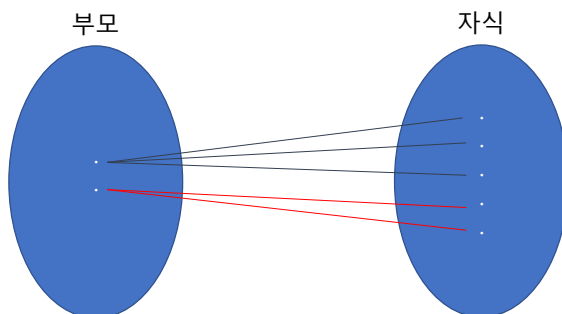
1:1 관계

신랑			신부		
ID	성명	신부	ID	성명	신랑
1	홍길동	B	A	황금자	2
2	김종남	A	B	이난영	1
3	이하선	C	C	박상순	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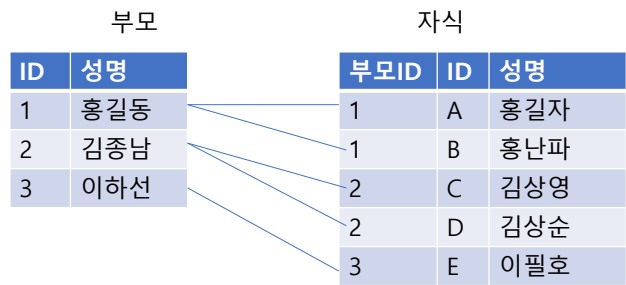
=			
신랑 ID	성명	신부 ID	성명
1	홍길동	B	이난영
2	김종남	A	황금자
3	이하선	C	박상순

1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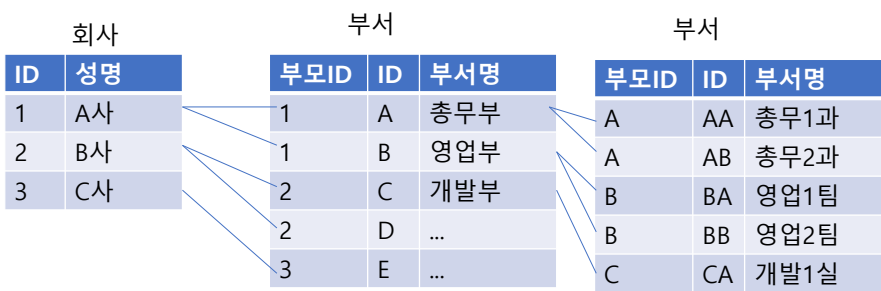
- 1 : M관계는 한쪽이 관계를 맺은 쪽의 여러 객체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,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매우 일반적인 형태입니다.
- 부모와 자식 관계가 대표적 예가 될 수 있죠. 컴퓨터 디렉터리 구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.
- 테이블은 서로 선천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



1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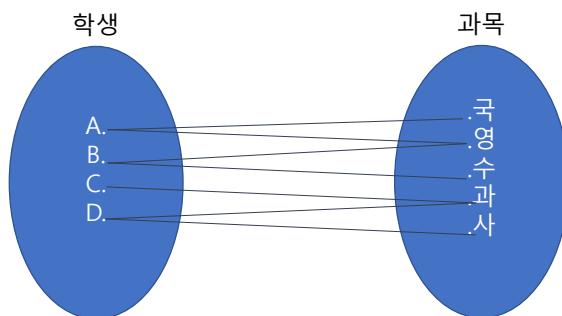


1:M 관계 => 재귀적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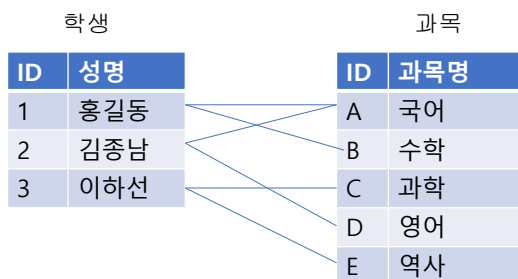


N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- N : M 관계는 관계를 가진 양쪽 당사자 모두에서 1 : M 관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.
- 예를들면, 학생과 과목의 관계입니다. 학생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, 과목 입장에서 보면 여러 학생이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어느 쪽에서 봐도 다:다 관계가 성립됩니다.
- 이 관계는 선천적으로는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가 없습니다. 각 테이블은 스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 줌으로써 관계가 형성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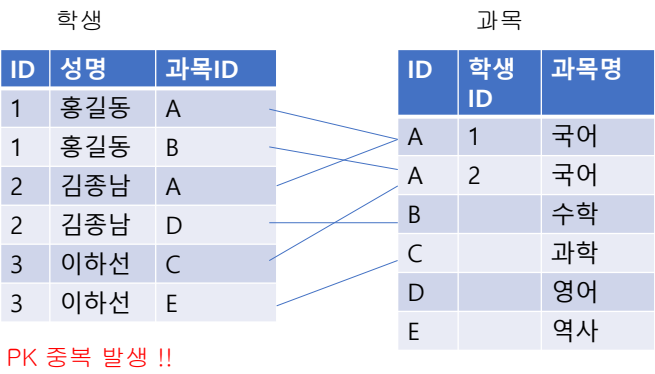


N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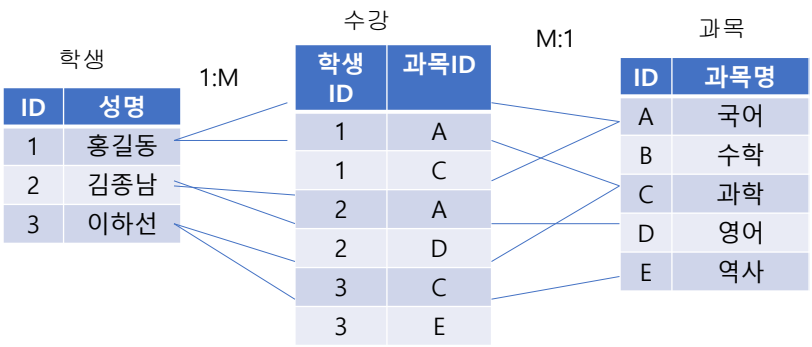
-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만 관계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.

N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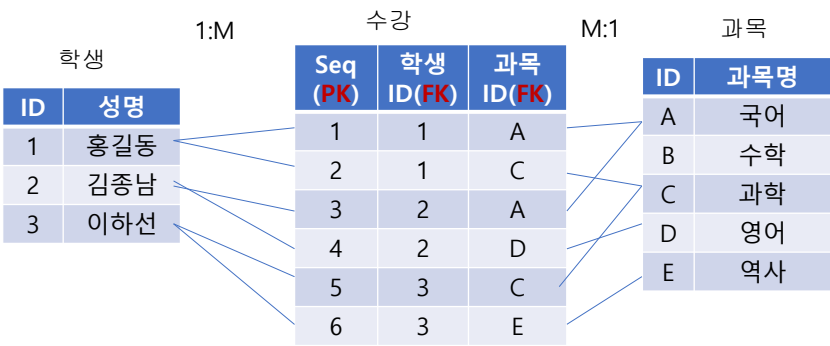
N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- N:M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테이블이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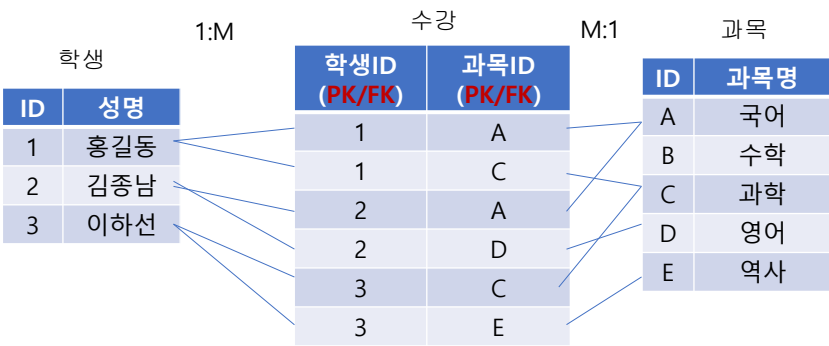
N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- 관계 테이블에 독립형 PK를 사용하는 모델



N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- 관계 테이블에 상속형 PK를 사용하는 모델



N:M 관계 => 가장 많은 형태

- 관계 테이블에 PK와 대체키(보조키) (alternate key)를 사용하는 모델

